

[자원봉사 웨비나 - 코로나19를 넘어 자원봉사의 지평을 열다]

1차. 혼돈의 시대, 전환의 가치와 지향

2020.06.22

(주요 내용)

-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지속가능성 위기 직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발전 경로의 전환 필요
- 초세계화, 신자유주의,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은 이전부터 21세기 인류의 과제였음. 코로나19는 더 이상 외부로 문제를 돌리며 전환을 회피하지 말라는 자연의 경고
- 그 방법인 전환적 뉴딜은 21세기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임
-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큰 전환의 시점에서, 민주시민으로써 한 국민으로써,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더 잘 고민해야 할 시기임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의 화두

발 표 :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 팬데믹이 5개월이 넘어감.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적 상황임. 금년도 내로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시 경제적 악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 백신이 개발되어도 바이러스 변이 등 종식이 쉽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우리나라는 사실 봉쇄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K 방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내 곧 거리 두기 완화와 황금연휴 등의 여파로 통제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는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감염병 재난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 이렇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국가에서 민생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임. 코로나19 종식은 없으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유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생각해야 함.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함. 정부의 지원도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전환 되어야 함.

(포스트 코로나, 변화의 대두)

- 변화는 퇴행적 가능성과 진취적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일어날 변화의 흐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코로나 이전,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이전에는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회복탄력성과 위험을 고려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너지고 있음. 이후 폐쇄경제시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윤과 효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부작용을 조절하며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있음. 공공재를 중시하는 세계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 이전에는 사회보다 개인들을 위주로 한 신자유주의가 주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 공공안전망 등등 정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점차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통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 경제 민주화를 지향해야 함.

-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며 산업이 점차 지능화가 되고 있음. 이에 인간노동을 대체하며 환경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디지털 전환이 요구됨. 하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격차가 벌어지거나 AI와 로봇 등의 일자리 탈환 등등 여러 우려가 존재해 잘 활용해야 함. 현재 지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급격히 늘고 있고,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함.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후 곧 찾아올 기후 위기는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할 것임. 미리미리 그린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함. 이미 초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은 있었음. 전환을 피하지 말고, 외부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함.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성장 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 인구 과잉시대의 우리나라는 너무나 자본 위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자본과 인 시대에 맞춰 사람 한명 한명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 중심 경제로 성장해야 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본에서 사람 위주로 바뀌어야 함. 따라잡기 시대의 교육과 혁신시스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야 함. 공정과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함.

(한국판 뉴딜의 방향)

- 인격 존중 · 역량 개발 · 행복 추구에 기초한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효먼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그린 뉴딜 이 세 가지의 전환적 뉴딜에 집중해야 함.
 - 전환적 뉴딜은 21세기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임.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가개입 수용성이 올라가고, 낮은 이자율로 공공투자 확대가 용이해 졌으며, 화석연료 기반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음. 한국도 단순 피해계층지원에 초점을 맞추다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변환의 계기로 삼아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가 5.7 제2차 경제중
-

대본 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휴먼 뉴딜의 핵심인 전국민 고용안 전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5.12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대통령 4개 부처에 보고 지시하였음.

(그린 뉴딜의 필요성)

- 휴먼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비해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경제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린 뉴딜임.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임. 2019년 처음 제시된 그린 뉴딜은 환경과 경제 및 사회,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이며,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므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함. 세계의 흐름은 불과 9년 만에 에너지 비율이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고 있음. 미국과 유럽은 그린 뉴딜을 채택하여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한 노력 높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낮은 전기값에 중독된 한국은 석탄발전소의 비율이 너무 높음. 하여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 우리나라는 구체적 목표가 없어 일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지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보완하고 발전해야 함.

(한국판 뉴딜과 자원봉사)

- 변화의 동력은 결국 시민들이며 이들의 실천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 사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그 실천의 움직임에 있어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함. 미국 사회 주축들의 석탄 사용 줄이기 운동이 파리협약을 맺게끔 한 것처럼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역과 시민 사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 아무리 큰 것도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이번 방역에서도 자원봉사의 힘이 빛났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함.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시민, 자원봉사자

패 널 : 권미영(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 현재 본질적이고 만성적, 전 지구적 스케일의 문제에 맞서,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직면해야 함. 현재 생태계 위기가 아주 심각하고, 불평등 문제도 심각함.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 21세기, 진보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
-

-
- 자원봉사의 출발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이타적 행위이며 이 행위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임. 심지어 그 행위의 수혜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호르몬이 분비되어 긍정과 치유가 확산된다고도 함. 평범한 이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회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섰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방역을 실천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자가격리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현장관계자들에게 키트를 전달하는 등등 다양한 곳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실천함. 불안, 혐오 등의 사회적 키워드가 자원봉사를 통해 긍정의 키워드로 전환되었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며 변화를 만드는 이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 지금까지는 항상 모여서 활동하고 집합에 초점을 많이 두었음. 현재는 그것이 쉽지 않은 때임. 단순히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고도 활동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봄. 자원봉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성을 띠고 진화하고 있음.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힘을 볼 수 있음. 나아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때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크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큰 전환의 시점에서, 민주시민으로써 한 국민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더 잘 고민해야 할 시기임.
-